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신현고 동아리발표대회’

과학동아리 ‘혜음’에서 준비한 ‘빙향제 만들기’

사진 _ 이예슬 교육홍보팀 주무관

2~3면	지난 1년, 앞으로 3년
4~5면	교육감과의 간담회 주요 내용
7면	교육정책 돋보기
8면	인천교육소식
12~13면	변화하는 진로진학

이청연 교육감 취임 1년 맞이 교육가족과 시민께 드리는 글



“공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인천광역시교육감이청연입니다.

지난 1년은 다시한 번 인천교육을 꼼꼼하게 진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상위의 보고서가 아니라, 교육 현장으로 달려가 소통의 청진기로 생생하게 진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진단에 따른 처방은 공교육의 기본을 회복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공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은 몸과마음의 건강한 균형, 기초학력 바탕 위에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는 것, 그리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쌓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인천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고려하여 등교시간 정상화를 시행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과도했던 중고등학생 두발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모든 학칙은 학생을 비롯해 구성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보충수업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일제형 시험을 과정중심 평가로 바꾸었습니다. 동시에 교육부와 함께 지필평가 없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절대평가 중심의 중학교 성취평가제를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인성교육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면 교육의 효율성도 높아 집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로 인해 이제 교실은 조는 아이, 엷드린 아이보다 참여하는 아이, 즐겁게 배우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앞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방향을 잃지않고 공교육의 기본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체질개선

한편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시민의 참여, 역량중심의 인사를 통해서 교육행정의 체질을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통제의 도구였던 학교평가를 학교자체 자율평가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학교는 좋은 평가결과를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미기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 성찰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감사관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감사관은 교육청 외부 인사를 임용하였으며, 공모제 교육장을 시행하여 열린 행정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사무관과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서 역량심사 평가 비중을 늘리고 교감 연수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동료평가를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전문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분들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성을 극복하는 교육혁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공교육의 기본 회복이라는 평범한 진실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을 점수로 서열화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학교와 선생님을 믿



고 '지원' 하겠다고 하지만 '지시' 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길은 교육 혁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의 타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기본을 회복할 수 없기에 '혁신'을 자기암시처럼 되풀이했습니다.

'행복배움학교'는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혁신하는 모델입니다. '행복배움학교'의 원동력은 교육감의 의지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열망입니다. 교사들은 어떤 인센티브 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행복과 보람만으로 맘 흘리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협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점수로 서열화하지 않고, 특성으로 개별화하는 수업. 지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지혜로 협력하는 수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뜻에 공감하는 2000명이 넘는 선생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혁신교육 연수를 자발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설명회에 스스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인천교육의 새로운 기운이 '행복배움학교'로부터 번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점 과제

▶ 단계별 진로진학 로드맵 제시, 정책사업 축소 정비, 시민참여행정 구현

앞으로 3년의 집중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내에 초중고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교육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옆 친구, 옆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불안한 저울질을 하기보다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꿈을 찾아가도록 학교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미 인천은 학생부종합전형 등 변화하는 입시 트렌드에 발맞추어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학지도를 통해 올해 주요대학 전년 대비 합격률이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타시도로 유출되는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학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을 체계화하여 인천교육이 진로진학교육의 전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교육청은 털어내는데 집중하고, 교직원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도록 공문



량 축소를 넘어서, 불필요한 교육청 정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정비하고, 교육활동의 걸림돌을 찾아내서 개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학교업무정상화 방안을 올 가을까지 마련하고, 201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가 인천교육을 풍성하게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일구어하겠습니다. 남구에서 시작된 교육혁신지구 사업, 진로직업체험학습, 방과후 학교, 교육기부 등에서 지역사회 자치역량과 학교를 날줄과 씨줄로 엮어 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교육재정 위기, 헤쳐나가겠습니다.

인천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인천교육재정은 지금 보릿고개입니다. 1474억이 부족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은 2013년 이후 그 대로인데 물가상승에 따라 필수 경비는 늘고 있습니다. 올해 누리과정 2600억도 참으로 버거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듯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 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

육 자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요구한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그리고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이 어려움을 반드시 헤쳐 나가겠습니다.

▶ 우공이산의 자세로

이 자리를 빌려 선생님과 모든 교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소명 의식이 우리 인천 교육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을 잊지않겠습니다.

또한 애정 어린 격려와 비판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목을 끌거나 말을 앞세우기보다 밤사이 소리 없이 내린 단비가 논을 적시듯, 학교와 교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 기울이는 교육 ①



의견 고맙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교육감과의 간담회 주요 내용

이청연 교육감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과 릴레이 간담회를 마련하여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27일 『인천교육, 부모님께 들읍시다.』를 시작으로 29일 고등학교 학생회장 40명과 <이청연쌤과 토크>, 유치원·초·중등 교사 및 행정직 각각 10명과 함께 <인천교육 Talk to You>를 30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과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다니는 혁신학교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에 대해선 확신이 없어요. 더불어 혁신학교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학부모가 많아요. 실질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학부모>

▷ 행복배움학교(인천형 혁신학교)는 전혀 다른 학교가 아닙니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성적산출과 입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변화와 혁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800여개 혁신학교 중에서 중학교는 200개가 넘고 고등학교는 70여곳입니다. 일반학교에 비해 행복배움학교의 철학과 방향이 서서히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도 행복배움학교의 철학과 방향이 서서히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도 행복배움학교의 철학과 방향이 서서히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도 행복배움학교의 철학과 방향이 서서히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도 행복배움학교의 철학과 방향이 서서히 파급되고 있습니다.

진로전환교육이라고 하나 진학교육 중심입니다. 진로교육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실질적인 체험처 발굴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 진로 로드맵을 통해 초중고별로 성취 목표 및 기준에 맞는 진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치단체나 교육지원청 위탁 등 10여 곳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1회 이상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처를 구축하였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은 결국 학생들이 교감을 봅니다. 교무행정사 확보나 수석교사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작은 학교의 경우 교무행정보조도 없어 교원 업무가 과중합니다. 정책일몰제 꼭 필요합니다. <교사>

▷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천교육재정 여건 상, 교무행정사 도입은 어렵습니다. 기준에 따라 작은 학교에도 일부 교무행정실무원을 배치 중입니다. 9월에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발족하고 현장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부로 느끼는 업무경감을 하려고 합니다. 정책일몰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구도심(부평구) 지역의 학교는 역사별적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학교에는 예산을 더 지원해야 공공화하지 않나요? <학부모>

▷ 원도심 지역 학교 지원을 위해 건물유지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취약 계층 학생 수를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에 반영하여 어려운 학교에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의 부모로 자원봉사 수요처를 찾기 힘들고 관련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학부모>

▷ 초등학생은 봉사의 기본 정신과 태도를 익히는 기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봉사 프로그램이나 인천시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전용 누리집(nanum.ice.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교육도 부족하고 안내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 2회 이상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위원 연수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인천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hbm.ice.go.kr)의 '학교운영위원회 사이버 연수'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핸드북(안내서)을 배포하였고 인천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유치원 학급당 정원이 광역시 기준으로 평균 또는 평균 이상으로 많은 편입니다. 도 단위와 비교하면 더 많아요. <교사>

▷ 현재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2013년에 수립한 2014년~2016년 유치원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결정된 기준입니다.(만3세 18명, 만4세 26명, 만5세 28명) 법령에 따라 2016년도에 실시되는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통하여 학급당 정원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행정실과 교무실의 업무분장 관련 갈등이 심합니다.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주세요. <교사>

▷ 「학교업무 정상화 기본계획」과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의 운영을 통해 학교의 업무분장 갈등을 최소화할 매뉴얼을 개발할 것입니다. 더불어 업무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사안이 발생하는 만큼 학교 구성원 간 업무관련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협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의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지방선 주제가 아닌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유 주제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나 중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교사>

▷ 남부 교육혁신지구에서는 학교 특성에 맞게 자유 주제로 운영할 수 있는 창의공감교육과정 13교를 공모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는 교육청의 의지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투자와 구성원의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동구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등 몇 가지 어려움이 있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2016년 지구 확대 추진 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60학급의 큰 학교에 시설관리직 명으로 부족합니다. 노후된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순회 점검점검단이나 긴급대체반 등이 필요해요(학생직)

▷ 단위학교의 시설관리업무 경감을 위하여 남부교육지원청을 시범 지역으로 하는 「학교시설지원센터 설립안」을 마련하여 2016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6년 시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2017년 이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직은 소수이다 보니 원칙을 지켜라하고, 교원은 다수인데다가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은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교감행방의 역할이 중요합니다.(행정직)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단위학교 원탁토론 운영 계획」에 의거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수평적 토론을 통해 학교업무를 정상화 할 방안을 찾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 내에 지방직 업무정상화 분과를 두고 행정직의 요구도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학교관리자의 역할 제고와 인식 강화를 위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생활 개선 3대 정책(등교시간 정상화, 학습선택권, 두발규제 완화)에 대한 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학생>

▷ 학생생활 개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습선택권 보장 정기실태조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조치도 하겠습니다.

특성학교 실습 교육 시간에 호방을 입는 등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모든 교실에 상방막을 두거나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학생>

▷ 현재 실습실 안전인증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각종 위험 요소가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실험·실습실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노장진 공부와 학교현실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교원임용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중등의 경우 신규교사가 성 지역학교로 많이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사>

▷ 신규교사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결과를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찾겠습니다. 신규교사 도서벽지 발령과 관련해서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개정 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보기준을 바꾸고 교원들이 도서벽지 학교를 희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학위원단 컨설팅점수나 영재교육 개선책, 방과후학교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교사>

▷ 기존의 승진가산점은,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사업 유지를 위한 유인책으로써의 성격이 강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11개 항목 중 7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담당자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청 집합회의 시간을 4시 이후로 늦춰 주었으면 합니다. 보결이나 교환수업의 부담이 큼니다. <교사>

▷ 집합회의가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은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국·과장 회의에서 결정된 연수관련 유의사항을 각 과에 전달하여 학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집합회의 관련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이는 교육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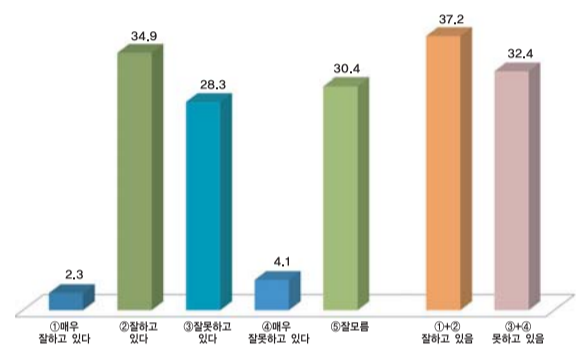


2015 인천교육정책 일반 시민 인식조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인천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2015년 인천 교육정책 만족도를 평가하고 인천 교육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6월 16일~23일까지 전화면접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 100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입니다.

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대통령공약 사항인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은 58.4%의 시민들이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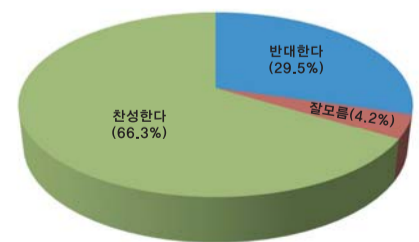
⑤ 인천시 교육감의 직무수행 평가 및 이유



교육감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이 '잘 못한다'는 응답에 비해 다소 높았다. '잘한다'는 응답자가 선택한 이유는 학교 '교육 혁신정책(26.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뒤를 이어 '교육복지 관련정책(23.2%)', '학교안전 및 학생인권정책(22.5%)',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정책 운영(20.8%)' 순이다. '잘 못함'이라는 응답자의 이유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정책 운영(29.1%)'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다음은 '교육복지 관련정책', '학교안전 및 학생인권정책', '학교교육 혁신정책' 등이다.

'잘한다'는 응답의 경우 학부모와 비학부모의 응답 경향이 유사하였다. 반면, '잘 못한다'는 응답에서는 학부모의 경우 학교혁신정책(25.3%), 학교안전(22.8%),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21.9%) 순인데 비해, 비학부모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32.1%), 교육복지관련정책(21.5%), 학교교육혁신정책(16.5%) 순으로 엇갈린 평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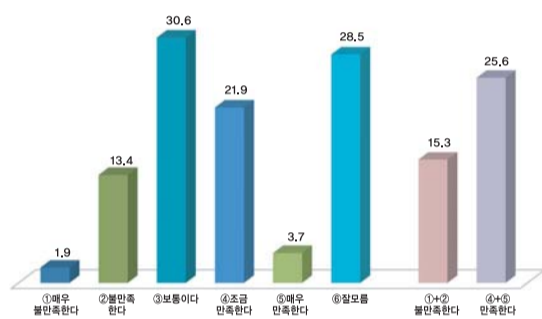
⑥ 시·도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찬반의견



인천시민들은 현재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는 시·도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66.3%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29.5%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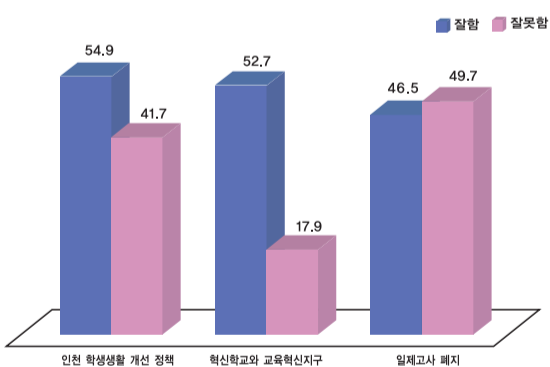
정리 : 이광수_교육정책연구소 연구사

① 인천교육 정책 만족도



인천교육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6%인 반면 '불만'이라는 응답은 15.3%이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한다'는 응답비율 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8.5%로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는비학부모 690명 가운데 37%인 255명이 잘 모름으로 대답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학부모층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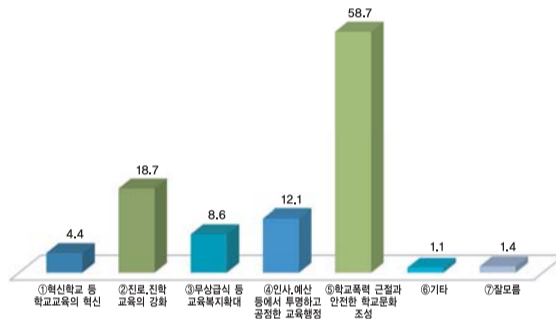
② 추진 과제별 평가



9시등교, 두발자유화 등 인천학생생활개선정책과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교육혁신지구에 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다만 일제고사 폐지에 관해서는 부정 평가가 다소 높게 나왔다. 일제고사폐지의 경우 학부모층에서는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비학부모층에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비학부모층 가운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잘 못했다는 의견이 월등하였다. 이는 비학부모층의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도 차이로 발생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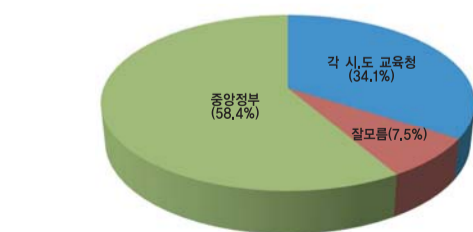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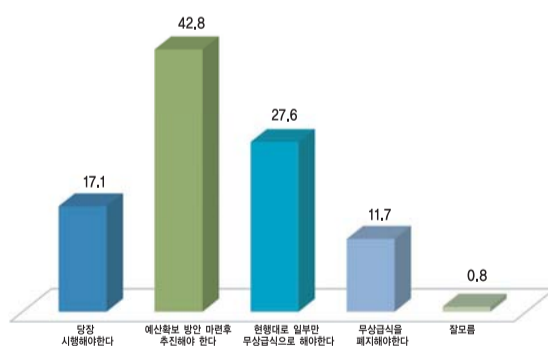
③ 인천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정책



인천시민들은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다음은 '진로·진학 교육의 강화', '인사·예산 등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행정 운영' 등이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과 안전에 대한 인천시민·학부모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로·진학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교육정책으로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중학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대한 의견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시행하라

교육정책 돋보기



재정과 민주시민교육

김현국_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소장



지방교육재정의 민낯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심각하다. 지방교육재정은 재원 대부분이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 대표인 국회는 세금 일정 몫을 지방교육재정에만 사용하도록 법률로 정했다. 목적세인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몫은 최근 몇 년 동안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교부금 규모가 줄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전에 결정된 2013년 교부금은 39.2조원이었지만, 올해는 39.4조원이다. 연평균 증가율이 0.3%에 불과하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에도 미달한다. 실질 가치 기준으로 절대 규모가 줄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2년 동안 정부 총지출을 연평균 4.6% 증가시켰지만, 유독 교부금만 0.3% 증액하여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률로 묶이 고정된 교부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정부 실패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경우, 둘째 국회가 감세를 결정하는 경우, 셋째 정부가 세수 추정을 실패하여, 예산보다 국세 징수액이 줄어드는 경우이다.

법률에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지방자치 교육재정 일부를 중앙정부 사업에 쓰도록 강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무색해지는 지경이다.

멀어지는 교육재정 효과

교육재정이 줄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이다. 학생들은 연령에 맞는 질 좋은 학습 기회, 교육 여건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와 소속 정당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고교 무상 교육, 3-5세 교육과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등을 약속했다. 후보와 소속 정당은 교육 여건을 개선 하겠다고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중앙정부의 모든 지출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늘려나가기만, 교육재정만은 줄이고 있다.

우리 사회 최고 책임자들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원의 실패로 인한 피해를 어린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사회를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3년 전부터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며 여러 해법을 찾아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한 우리 사회는 참으로 학생들에게 부끄럽다.

공교육 재정만큼 효과가 뛰어난 공공지출도 드물다. 미래 시민들이 골고루 역량을 키워, 좋은 일자리로 진출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많이 내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어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투자하는 비용에 비

해 창출시키는 경제 효과가 크다. 유치원 교육은 8배, 대학교육은 3배에 달한다. 경제 효과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재정과 사회보험료 증가로 돌아온다.

교육에서 경제성이 가장 떨어지는 대학도 무상 교육을 하면 투입하는 재정은 10조원이지만, 증가하는 세수와 사회보험료는 15조원을 상회한다. 우리 공공 지출 가운데 이렇게 경제성이 높은 사업은 거의 없다.

책임지는 정부의 역량 있는 공직자들은 교육처럼 장기 효과가 좋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무책임한 정부의 실패한 공직자들은 단기 경기부양책에 매달리며 지속가능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

최근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놀랍게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좋은 나라는 복지국가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가 가장 적다. 노르웨이 34%, 스웨덴 38%, 덴마크 46%, 핀란드 54%에 불과하다. 일본 238%, 그리스 157%, 이탈리아 127%, 미국 103%, 프랑스 90%, 영국 89%, 스페인 86%, 독일 82%와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무상교육을 확대할수록 재정은 튼튼해진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다가올 정기국회 동안 지방교육재정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다른 나라 공직자들처럼 나라의 미래를 준비할 역량은 모자라더라도, 최소한 중앙정부 지출 증가율 정도로는 회복시켜야 한다. 교육감과 교육계, 부모들도 학생 교육기회를 지키기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작동가능한 해법도 충분히 나와 있다. 세금 가운데 교육재정 몫 증가, 국고 보조, 특별교부금 폐지 등이다.

교육이 건강한 사회가 해답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공직자가 되도록 졸업시키지 않는 일이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선진국 진입 이후 국가들에서 핵심 의제는 조세와 재정이다. 더욱 윤택하고 공정한 경제,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책임정부, 모두 조세와 재정을 통해 내실화된다.

첫 투표를 할 때 세금을 누구에게 더 걷고 누구에게 덜 걷는 것이 바람직할지, 재정을 어떤 부문에 늘리고, 어떤 부문에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권자를 배출해야 한다. 신성한 주권을 지연, 혈연, 학연에 따라 행사하는 졸업

생,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졸업생을 배출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 후보들이 두려워하는 주권자를 배출해야 한다.

2학기부터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에 대해 학년에 맞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자. 왜 에어컨 가동 시간을 줄여야 하는지, 왜 체험활동을 줄여야 했는지, 왜 교사가 줄었는지 학생들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판단해보도록 하자.

학교마다 30만원씩 10가지 사업 정도는 학생 제안 예산제도를 시작해보자. 매년 친구들과 협동하여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하고, 집행해 본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이 늘어날 때, 공약을 파기할 선출직 공직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공직자도 나타나기 어려워진다. 북유럽 국가 학교 대부분은 오래 전부터 학생 제안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6년 동안 공교육 혁신의 흐름이 도도하다. 헌신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분들 사이에 요즘 뜨거운 질문이 하나 있다. “다른 부문 변화 없이 교육 혁신만으로 사회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교육만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부문이 얼마나 있을까?”

작년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 때 장애 있는 친구와 손을 잡고 결승선을 더불어 통과한 학생들이 세상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꼴찌는 맡아 놓았지만, 참가하고 완주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던 학생 본인과 부모 입장에서는 그날만큼 세상이 바뀐 날이 또 있었을까? 널리 알려지지 않을 뿐 이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중학생들이 발랄하게 제기해서 확산되는 9시 등교도 신선하다. 학생들이 배우고 생활하기 최적의 시간으로 등교 시간을 변경하니까, 자녀와 아침밥 한 번이라도 더 먹는 부모들이 늘었다. 변화가 불편했지만 자녀의 행복과 학습의 균형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곰곰이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실패해도 교육이 건강한 사회라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 외부 필진의 글은 인천시교육청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교육소식

일본 요코하마 시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서명 운동 전개

학생 시민들이 함께한 역사왜곡 바로 세우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8월 2일 일본 요코하마 시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움직임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서명과 교육감 서한문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비록 역사왜곡 교과서가 계속 쓰이게 되었지만 성과가 없진 않았다는 평이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된 <교과서검정·채택 기준에 유엔 교육지침의 적용을 요구하는 국제공동행동 서명>에는 인천의 학생과 교직원 등 총 126,654명이 동참했다.

이 서명에는 일본군 '위안부' 나 '강제연행' 등 가해사실 기술, 이웃나라들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교과서 채택,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역사교육, 교사의 교과서 선택권 보장 등을 담은 유엔의 권고를 일본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요코하마 시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누락한 교과서가 쓰이는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의 시민단체 '요코하마 교과서 채택 연락회'와 한국의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대표단과 협의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역사왜곡 교과서의 심각성을 알리는 수업을 진행했다.

한편 서한문과 서명을 요코하마 시에 직접 전달한 장제우 학교교육과 과장은 "수업을 들은 아이들은 부모님께 설문지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한다.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서명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공보담당관 교육홍보팀



장서초등학교 교무실

투명한 교장실, 구령대 없는 운동장

9월에 개교하는 일부 학교의 교장실이나 교무실은 안이 환히 보이고 구령대는 사라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작년에 완공한 만월초를 제외한 백석초, 가원초, 장서초의 학교 건물을 새로운 접근에서 지었다.

이에 따라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의 복도 벽은 유리로 되어 학생들이 이안을 쉽게 볼 수 있다.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과 함께 학생들이 올려봐야 하던 구령대는 아예 만들지 않았다. 교문의 높이 또한 기존보다 낮은 1.5m로 하여 시원하게 했다.

김진철 대변인은 "교장실 벽의 투명 유리화는 '작은 공간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생각의 변화가 교육의 변화로 이뤄진다'는 이청연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교내 관리실 벽을 유리로 만든 것은 교육 현장에서부터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3월 개교하는 연수구 송도2초, 과학예술영재학교와 서구 마전고 등의 학교도 같은 형태로 건립할 계획이다.

공보담당관 교육홍보팀

"등근 에너지가 났습니다"

2016년부터 242개 학교 햇빛 발전 시작

인천 전체 초·중·고교의 절반가량인 242개 학교 옥상에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시책인 탄소배출량 저감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태양광 발전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인천의 500개 초·중·고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건물 배치방향과 노후 정도 등을 따져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학교들을 추려냈다.

현재 사업대상 후보는 242개 학교와 도서관 등 교육청 산하 3개 사업소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시교육청과 계약한 민간투자사업자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10여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면 교육 당국이 다시 10여년간 운영해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인천보다 앞서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도 등

다른 지역 사례를 고려할 때 학교마다 90~10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각 학교가 전력 생산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자 운영기간에는 연간 200여만원, 교육당국 운영기간에는 연간 1천여만원의 새로운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교육청은 태양광 발전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고시와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실시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생생하게 교육하는 부대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오는 10월까지 사업설명회 개최와 학교 동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 내용은 8월 24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가르치기 위해 학생이 된 선생님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 ① 연수기간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의 수업을 해봅니다.
- ② 연수에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여러 가지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③ 강의는 듣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됩니다.
- ④ 즐거운 배움은 무더위도 잊게 합니다.

시선 | 학생기자단

인천 갯이부리마을을 아십니까?



인천 동구만석동에는 인천항 개항 후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갯이부리마을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낡고 허름한 판잣집을 지어 살던 곳인데 김중미의 소설 '갯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판자로 덧댄 쪽방 여러 개가 붙어있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공동화장실을 쓰는 이 마을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근처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인천에 그런 곳이 있어?” 하며 놀라고 만다.

개발해야하는가 말아야하는가

갯이부리마을은 현재 대부분이 개발되어 아파트가 들어섰고 일부 쪽방 촌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개발과 최근 동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쪽방 체험관 논란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주민들은 분통을 호소했다.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불만이 많은데 뭐 볼게 있다고 남들 보여주려고 하냐는 식이었다. 주민 대부분은 쪽방 체험관에 분노하며 반대를 했다.

개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라졌다. 위쪽 사람들은 개발을 찬성하지만 일부 뒤쪽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는 것이다. 개발을 하려면 다 해야지 반만 하는 경우는 어디 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개발보단 개선이 필요하다

갯이부리마을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 마을 상황과 의견을 물었다. 개발에 대해 말을 꺼내자 개발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냄새나고 곰팡이 피는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을 먼저 바꿔야한다고 말이다.

개발된 곳과 개발되지 않은 곳은 삶의 질부터 다르다. 기본적인 여건인 화장실부터 휴양시설까지 말이다. 갯이부리마을에도 쉼터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여건이 부족한 실태이다. 송월동도 갯이부리마을처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동화마을로 변화하였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졌다.

갯이부리마을에 대해 사람들이 바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과 잘 협의하여 마을 개선을 상품화가 아닌 사람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도연_인일여고, 조승주·조수정_옥련여고
박은진_인천포스코고 학생기자

차이나타운 역사

인천 차이나타운은 조선 말 개항 이후 제물포지역이 청나라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설정되면서 형성되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선린동 일대에 정착한 화교들이 그들만의 고유의 문화와 풍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차이나타운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은데, 자장면의 발상지라 알려진 공화춘도 그 중 하나다. 공화춘은 1905년에 개업했다고 전해지며, 부두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고유의 양념인 춘장을 볶아 삶은 면위에다 올려 먹은 음식이 자장면의 효시다.

옛날 청국영사관으로 사용했던 화교중산학교는 담장에 삼국지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새로운 볼거리를 선물한다. 인근의 한중문화관은 중국 역사·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는데 중국옷 입어보기, 차 마시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그밖에 차이나타운은 자장면, 해물짬뽕, 물만두, 중국전통 월병과 공갈빵 등 푸짐한 먹거리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초기에는 청나라 거상들의 점포와 음식점 및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고, 청나라 관청이 있는 동네라는 뜻에서 '청관'이라 하였다. 상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거상들이 자리를 잡았고, 유명한 중국 요릿집들이 개점하는 등 매우 번창하였다. 1990년대 한중수교를 계기로 차이나타운은 대중국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는데, 중국문화 체험을 넘어 골목골목을 걷다 보면 중국의 어느 곳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활기가 넘친다.

임지수_작전여고 학생기자



Floorball (플로어볼)

지난 8월 8일(토) 인천광역시 교육감배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 대회가 남고부 7팀, 여고부 3팀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 초은중학교에서 열렸다. 플로어볼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비인기 종목이다. 농구, 축구 등의 스포츠에 비하면 플로어볼은 아직 부르기조차 어색하다.

플로어볼을 쉽게 생각하면 하키와 비슷하다. 스웨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유럽 지역에서는 인기 스포츠 중에 하나다.

플로어볼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플로어볼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한번 접하고 나면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다. 이러한 매력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플로어볼 인구 역시 확대되고 있다.

플로어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회에 참가한 인천국제고 2학년 예빈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Q : 플로어볼을 어떻게 처음 접했으며 그 때의 느낌은 어땠나?

A : 학교 스포츠클럽을 통해 처음 접했다. 플로어볼을 처음 봤을 때는 마치 스포츠경기가 아니라 장난감 같게 느껴졌다.

Q : 플로어볼을 실제로 해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나?

A : 무엇보다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팀워크가 중요한 만큼 골이 들어가면 그 성취감 또한 혼자 이루어낸 것보다 더 값지게 느껴진다. 함께 협력해서 같이 이루어내는 점이 플로어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이혜인_인천국제고 학생기자



즐겁게 운동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네요

2015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지난 7월19일 2015년 인천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 대회가 선학체육관에서 열렸다.

인천시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펼쳐진 이번 대회는 30여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교육감배 치어리딩 대회는 스텐트, 댄스, 액션의 3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목별 1위는 전국 스포츠클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액션 부분은 전국대회 종목이 없어 교육감상 수상에 만족해야 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대회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평소 같고 닳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으며 학생들의 표정은 수상 여부와 상관 없이 즐거움과 성취감으로 가득했다.

응원차 방문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남을 즐겁게 해 주고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게 너무 좋다” 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신정원 학부모 기자



책과 함께하는 진로 캠프

“책도 읽고 직접 만들었어요”

지난 7월 25일 해원초등학교에서는 「책과 함께하는 진로 캠프」가 진행되었다.

해원초 도서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체험해 보기 위해 마련하였다.

진로캠프는 파주 출판단지 일대에서 이루어졌으며 해원초 최진, 오유진 선생님의 인솔로 20팀이 참가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시아출판 문화정보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출판도시 해설사와 함께하는 책마을 따라 걷기를 하였고 디자인 관련 직업교육과 패브릭 양장책 만들기를 끝으로 진로 캠프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책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뜻 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책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본 것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혜연 학부모 기자



불로초등학교 텃밭! 봉만장!

불로초 학생 · 학부모 70여명 참가

불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깨끗한 환경, 안전한 동네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연과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시작한 봉사활동이다.

검단 2동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진행된 본 행사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로초 학생과 학부모 70여명이 참가하였다. 4팀으로 나누어 학교 주변 골목 구석구석을 청소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거워진 쓰레기 봉투만큼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즐거워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앞으로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특히 담배꽂이가 너무 많다. 담배가 없어지면 좋겠다” 고 말했다.

김용옥 학부모기자



변화하는 진로진학

인천에서 열리는 진로진학의 새길

이병욱_교육혁신과 진로진학담당 장학관



학부모 진로코칭 연수 「학부모가 알아야 할 우리 교육의 아이러니」

▶▶ 변화하는 인재상

하버드대학교 석좌교수, 마이클 포터는 경쟁과 성장이 미덕인 신자유주의에서 상생과 협업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신인본주의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물결이 오고 있다고 설파한다. 퓨전(Fusion), 컨버전스(Convergence), 크로스오버(Cross-over), 하이브리드(Hybrid), 통섭(Consilience) 등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코드도 변화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따른 인재상도 바뀌고 있다. 미국의 한 경제전문언론사는 구글, 휴디포, 블랙스톤 등의 최고경영자와 인사담당 임원들을 인터뷰한 결과 새로운 인재 트렌드를 발표했다. (1) 호감 가는 성격을 가진 사람, (2)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사람, (3) 열정 있는 사람, (4)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꼽고 있다.

▶▶ 교육도 입시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교육의 무게중심이 '지식습득'에서 '역량개발'로 이동하고 있다. 지식의 축적보다는 지식을 잘 엮어 창조해 내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자는 것이다.

이는 대학입시와 초·중등교육이 시험성적 중

심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당위성의 배경이 되고, 대학입시 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대학입시의 방향도 바뀌고 있다. 그 핵심이 학생부종합전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창의성을 가진 지원자를 입학사정관이 서류와 면접

도전하는 자세로 학교생활에 임해야 한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한 학생이 유리하다. 둘째,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책임기, 인터넷

인천 학생들 학생부종합전형 강세

최근 3년간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전국 3위권(인구대비 2위)

2014년에 비해 2015년 주요대학합격률 10%이상 상승

등을 통해 선발하는 전형으로, 기존의 점수위주의 양적평가에서 역량중심의 질적평가로 입시 트렌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제도이다.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 선발에 가장 적합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해야

학생부종합전형은 첫째,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운영하기, 각종 교내대회 및 동아리에 열심히 참가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자신의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명확히 나타나는 것이 좋다. 또한 나의 진로와 관련한 활동들을 시기별, 주제별, 성격별로 구분하여 『동기·관심과 열정·지속성과 일관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일 것이다.



▶▶ 인천이 변화하는 대입의 내침판

국회 유은혜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통해 서울·경기 수도권 주요 대학의 최근 3년간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인천 지역이 전국 3위권(인구대비 전국 2위)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인천의 대학 입학 성과는 2014학년도 대비 2015학년도에 주요대학 합격률이 10%~20% 이상 증가하는 등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인천이 변화하고 있는 대입 전형에 맞추어 발 빠르게 나섰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인원 증가에 따라, 인천의 고등학교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요소인 창의성과 인성, 자기주도성 등의 미래형 학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고,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보다는 학교를 신뢰하며 소질과 적성에 맞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은 묵묵히 학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이었다. 단적인 예로 인천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타 지역과는 뚜렷하게 구별될 만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있다는 평이다. 이는 학생을 잘 아는 선생님, 선생님을 믿는 학생의 관계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진학 지도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 교육청의 지원

인천시교육청은 진로진학의 컨트롤타워로서 맞춤형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제 때에 맞는 진학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원스톱 진학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또는 다수가 진학하는 대학을 초청하여 전국 최초로 26회 진로진학 특강 및 88개 대학입학설명회를 연중 상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는 인천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사 12,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시박람회를 열어 수시 모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수도권 51개 대학과 충청지역 24개 대학이 참여한 이 박람회에서는 대입설명회와 진학전문 상담 선생님들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시 모집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실제와 닮은 대학별 수시 전형을 경험할 수 있는 모의캠프도 열렸다. 28개 대학이 직접 참여해 학생들에게 면접, 서류평가 등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는 ...

첫째,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학교생활 둘째,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활동 셋째, 자신의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별 수시모집 선발과 동일한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캠프에 교사, 학생 3,000여명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서해5도, 강화도 등 진학정보 사각지대 학교를 찾아가 진로진학 상담컨설팅을 진행했다. 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교사들은

비교하며 1, 2점 차이로 서열을 매기고 다그치는 교육으로는 자존감을 높이는 배움, 나를 알아가는 배움에 걸림돌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현재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생들은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배우고 자라며, 수업은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맛보고 자기효능감을 키울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 미래는 불안함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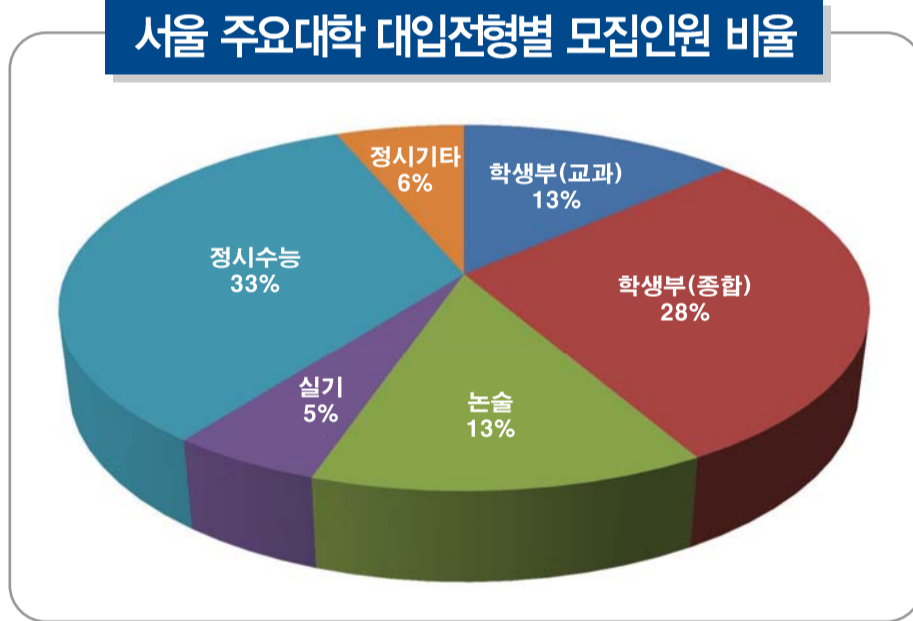
현재의 당연함 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당연해질 것에 집중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질문 없이 받아적고, 외우고, 문제 풀이에 능숙한 인재가 미래 사회에도 인재일까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풍량이 이른 뒤에 맞으면 그것에 내몰리게 될 뿐이지만 나아가 풍량을 맞으면 그걸 타고 더 빨리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 변화의 고삐를 잡고 새롭게 다가오는 세

상과 슬기롭게 맞설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우리가 골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보는 지혜와 관점이 필요하다.

이청연 교육감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장에서 "초중고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교육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제는 옆 친구, 옆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불안한 저울질을 하기보다 내가 즐기면서 잘 할 수 있는 꿈을 찾아가도록 학교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그 길이 시작되고 있다.

서울 주요대학 대입전형별 모집인원 비율



130회 이상 고등학교를 찾아가 학교가 요청하는 시간·장소·내용·강사를 구성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실질적인 입시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 행복한 현재, 설레는 미래

흔히 대입이 진로진학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초등학교부터 자신의 특성을 살피고,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진로진학의 출발점이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에 빠진 학생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모색하고 풍부하게 개척해야만 하는 변화된 대학입시제도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함께 변화해야 한다. 다른 이와 끊임없이



또 다른 학교



“비온 뒤 맑게 개인 하늘”을 뜻하는 “해밀”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이쁜 이름처럼 폭우같은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맑은 웃음을 찾아주고자 하는 학교, 바로 해밀학교입니다.

해밀학교는 지난 2012년도에 설립된 공립 Wee 스쿨로 학교폭력 가해, 피해, 정서불안 등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장기 위탁하는 공립 대안학교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는 학급으로 구성된 해밀학교는 1년 단위로 위탁

교육을 실시합니다. 1년 동안 폭우를 온 몸으로 맞고 있는 아이들은 해밀에서 상담활동과 보통교과과정, 대안교과과정으로 다시 웃음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아이들에게 기존에 학교에서 배우던 국어, 수학만이 아닌 지리산 종주, 켈리그래피, 통기타, 바리스타 등을 배우며 자신만의 맑게 개인 하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해밀학교는 학교교육 안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학교안에서 존중받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밀학교 선생님들은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며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아이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 다시 찾는 자존감, 대안은 해밀처럼 공교육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정인영_편집위원 부평초 교사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입원해서 치료받게 되었어요. 결석하는 날이 꽤 많아질 텐데, 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건가요?”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또

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생기는 심리적 문제는 치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센터는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와 사이버학교는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 혹은 온라인 쌍방향 화상강의 형태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습권 및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 처음 개교하여 현재는 인하대학교 병원학교 1개교와 인천사이버학교 12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별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은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출석을 인정받아 유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습을 위해 노트북, 마우스, 헤드셋 등의 관련 기자재를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원학교와 사이버학교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결손을 해소하고, 장기치료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치유장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병원학교 및 사이버학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http://iss.ice.go.kr>)와 병원학교 (<http://hoscool.ice.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민_편집위원 옥련중 교사

자르는 선

냉장고에 붙여두고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세요.



공연

공연명	일시	대상	내용	주관
이야기가 있는 마술쇼	9/12 10:00	누구나	선생님 마술사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교육마술	중앙도서관
'빨간모자'	9/12 14:00	어린이 및 가족	인형극	화도진도서관
빠샤와 마법 선물	9/12 15:00	유아, 초등학생	빠샤의 모험이 펼쳐지는 캐릭터 탈 인형극	북구도서관
슈퍼맨처럼	9/12 14:00, 17:00	5세 이상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모습을 그린 가족극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자전거 탄 풍경의 더 클래식	9/17 19:00	만 12세 이상	'자전거 탄 풍경'의 포크 가요	인천평생학습관
창작오브제공연 '종이공주'	9/19 14:00	어린이 및 가족	신문 및 폐품을 이용한 창작 오브제 가족 공연	연수도서관
신포에니에타 『음악으로 이야기하자』	9/19 16:00	초등학생 이상	전문연주단원으로 구성된 현악 앙상블 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10/10 15:00, 19:00	초등학생 이상	제18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극본상을 수상한 창작뮤지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중앙문화공연	10/17 15:00	누구나	매직레크리에이션과 함께하는 아동극<동구의 하루>	중앙도서관
팝핀현준 토크콘서트	10/17 16:00	초등학생 이상	공연예술가 팝핀현준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0/24 16:00	초등학생 이상	린나이팝스오케스트라의 관악 연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을 밤 북서트	10/29 19:00	누구나	김재진 시인과 '책의노래 서울(書律)'이 함께하는 가을 밤 북콘서트	연수도서관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11/7 16:00	초등학생 이상	신명나는 국악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플라잉	11/14 14:00, 17:00	초등학생 이상	리듬체조, 치어리딩, 마살아츠 등이 접목된 역동적인 공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굿바이 수능! 훌가분 콘서트	11/26,27 19:00	수험생과 가족	26일 스위트소로우, 27일 인천밴드협회의 공연	인천평생학습관

행사

행사명	일시	대상	내용	주관
청소년 독서토론	9/2, 9/9 19:00	중고등학생	권정생, 하이타니 겐지로 관련 강연 및 독서토론	북구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체험 <한국 전통 책 만들기-오침안정법>	9/12 14:30	초등학생	동양의 전통 책 만들기 대해 배우고 체험하기	중앙도서관
미리 만나는 추석	9/12 14:00	초등학생 가족	추석맞이 바람떡 만들기 및 전통놀이 체험	계양도서관
쿵덕쿵 떡만들기	9/12 10:00	누구나	<열두달 우리음식> 책 읽고 여러 가지 떡 만들기	서구도서관
아해 옛이야기	9/19 10:00	유초등학생	그림자극/인형극 등으로 전래동화의 재미 알기	중앙도서관
그림책과 친해지는 책놀이	10/10 10:00	가족	<배고픈 애벌레> 그림책 읽고 다양한 책놀이를 통해 자녀와 소통하기	서구도서관
2015 가작동 초록장터	10/17 10:00	누구나	책가방 만들기, 북표지 그리기 등 독서체험 행사	서구도서관
내 손으로 똑딱 서안 만들기	10/24 10:00	가족	가족이 함께 전통책상 만들며 목공예 체험하기	서구도서관
보드게임으로 함께 노는 가족	11/14 10:00	가족	보드게임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시간 갖기	서구도서관
우리가족 액자만들기	11/28 10:00	가족	아코디언 책으로 액자를 만들고 가족사진 담아보기	서구도서관
크리스마스 캔들 만들기	12/12 10:00	가족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천연캔들 만들기	서구도서관

강좌

강좌명	일시	내용	주관
2015 인문독서아카데미	9/7~10/12 매주 월요일	이 시대의 빅퀘스천: 진화에서 외계인까지	계양도서관
	10/5~11/2 매주 월요일 19:00	팝속에 흐르는 역사 이야기 - 강사 김우찬	부평도서관
	10/1~10/29 매주 목요일 19:00	과학을 만나다 - 강사 이은희 컬럼니스트	
길 위의 인문학	9/1 19:00	아름다운 우리 건축 이야기 - 강사 임석재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주안도서관
	9/5 14:00	건축사학자와 함께하는 궁궐 탐방(경복궁, 운현궁 등) - 강사 임석재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주안도서관
	9/16 13:20	한국 근대화 관문, 유행의 첨단(인천의 개항과 식민지 도시 인천) - 강사 이영태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중앙도서관
	10/7 9:30	개항장 및 수도국산박물관 탐방 - 강사 이후경 한국영상대학교 강사	중앙도서관
인천의 역사 향기를 찾아서	9/8 19:00	인천 역사 이야기 -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장	주안도서관
길에서 만난 찬란한 순간들	9/9 19:20	'소박한 행복'을 주제로 한 책과 영화 - 강사 광명동	주안도서관
	9/23 19:20	'상처의 치유'를 주제로 한 책과 영화 - 강사 광명동	
릴레이 재능기부 특강	9/12, 9/19 14:00	오장현 건축가 및 황윤 감독과의 대화	계양도서관
니체 읽기	10/7~10/28 19:00	진리와 선악에 대한 니체의 질문들을 사유하며 긍정적인 사람 모색하기 - 양운덕 철학자	서구도서관
사기 읽기	11/4~11/25 19:00	사미천의 '사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 찾아보기	서구도서관
저자와의 만남	9/11 19:00	『나는 관찮은 연이야』의 저자 '개그우먼 이국주'의 강연 - 주제: 자신을 가만 두지 마라	연수도서관
	9/16 10:00	『옛 그림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의 저자 이일수 작가의 강연	계양도서관

도서관 공통 - 과제지원센터 운영

- ♣ 장 소 : 각 도서관 어린이열람실
- ♣ 내 용 : 교과연계 도서목록집 제작·배부, 학년별 교과연계도서 추천
- ♣ 문 의 : 도서관 열람봉사과 등

※ 모든 강좌나 행사 등은 꼭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세요. 경우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 760-3433
- 중앙도서관 420-8422
- 화도진도서관 760-4122
- 연수도서관 899-7542
- 평생학습관 899-1516
- 부평도서관 510-7313
- 서구도서관 585-7104
- 북구도서관 363-5012
- 주안도서관 450-9139
- 계양도서관 540-4452



봉사활동은 어디서 하지?
어떤 봉사활동을 하면 좋을까?
'더하고 나누기 365학생봉사' 누리집에
답이 있습니다.

nanum.ice.go.kr



소통과 공감의 인천학부모지원센터

hbm.ice.go.kr

1.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지원

학부모회 활동 지원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 지원
학부모 네트워크 지원



2. 학부모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직장·지역사회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학부모 자생단체 역량강화 교육



3. 학부모 상담

온·오프라인 학부모상담 지원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4. 학부모 지원 정보 제공

자녀교육 정보, 교육정책 정보, 각종 사례 정보



미국의 어느 인디언 보호구역 학교에 백인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까다로운 문제를 내고 키닝하지 못하게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아이들이 서로 책상을 붙여 둘러앉게 되었고 선생님은 화를 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상하다는 듯 가웃거리며, "선생님, 저희는 어릴 적부터 어려운 문제는 함께 해결하라고 배웠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입니다.